

아특별법 개정·전라선 고속철화...정부 압박 야당 설득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정기국회 막바지 지역현안 해결 총력전

이병훈, 아특별법 연내 처리 노력
 김희재, 여당 지도부 약속 받아내
 주철현, 여수항 재개발 동분서주
 조오섭, 광주역 혁신지구 지정 사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종반전에 접어들어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측면 지원 요청은 물론 야권에도 협조를 읍소하는 한편 정부에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국회 문방위의 이병훈 의원(동남 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아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문화재단 조직 통합·조정, 문화도시사업의 유효기한 2031년까지 연장, 정부 소속기관 규정 등을 골자로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아시아 문화재단은 국가기관의 위치를 잃게 되며 법인 운영기관이 된다. 이 경우, 연 5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확보 등이 어렵게 되면서 심각한 운영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아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쟁점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거부,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3일 김종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정양석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답판을 지은 끝에 아특별법 개정안의 25일 문방위 법안 심사소위 상정, 26일 전체회의 회부 등을 이끌어내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의원은 김

종민 비대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된다면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호남 동행'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설득과 압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아특별법 개정안 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아시아문화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의 김희재 의원(여수 을)도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의 조기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갖고 "전라선 KTX 신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천 출신인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라선 KTX 예타 면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시급성을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이번에도 물거품이 된다면 전라선 철도 위에 드러눕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익산-여수 169.9km 구간엔 설계 속도 시속 350km의 고속철을 놓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여수간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경남의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라선은 평균 시속 120km의 저속철로 '무늬만 KTX'인 상황"이라며 "경부고속철도와 관련, '하이퍼루프' (Hyperloop·초고속자기부상열차·시속 1200km) 얘기까지 나오는 등 영·호남 간 철도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제공>

프' (Hyperloop·초고속자기부상열차·시속 1200km) 얘기까지 나오는 등 영·호남 간 철도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의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여수항 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수항이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다. 이 점에서 여수항과 여수 박람회장을 한데 묶어 재개발, 해양 관광의 메카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단, 주 의원은 내년 국고 예산에 여수항 재개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반영시킨

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수항 재개발 사업을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여수항과 여수박람회장을 재개발, 명실상부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편으로는 여수항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적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도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의 조오섭 의원(북구갑)은 광주역의 혁신지구 지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광주시의 부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혁신지구 지정에 머뭇머뭇한 상황이다.

혁신지구 지정은 다음 달 중순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3차 간의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주역이 혁신지구로 지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광주역 일대를 도시융합특구에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은 내년 1월께 이뤄진다. 조 의원은 "광주역이 지하화되고 지상의 광주역 일대가 혁신지구와 도시융합특구로 지정된다면 그야말로 광주역은 광주의 미래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양보와 배려로 공동체 안전 함께 지켜달라”

이용섭 광주시장 각계에 협조 요청
 국민의힘에 아특별법 처리 협조 호소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반복과 갈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온라인 현안 브리핑을 하고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교도소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연말에는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노동법 개정 저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의 집회, 광산구 하남산단 사업장 노사 갈등에 따른 집회,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회 집회 등이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도사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조금씩 양보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침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한 기아차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광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아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조 파업에 돌입하면서 자동차 생산 차질은 물론 270여개 지역 협력사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노사가 갈등, 투쟁보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임금·단체 협상을 이어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도시 광주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국립 아시아 문화재단 정상화를 위한 아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아특별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공공항 이천 특별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광주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만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국민 대통합도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겠지



김은영의
 '그림 생각'

(335) 스페이스 X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 어수선하다. 살얼음 겹듯 조심하고 또 조심히 생활하면서 곧 한풀 쉼이겠거니 했던 기대는 어느덧 헛된 희망이 되어버렸다. 가능하다면 바이러스 없는 우주 저 너머의 별을 찾아 떠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얼마 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X의 유인우주선이 우주인들을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날랐다는 뉴스는 때가 때인지라 귀에 반짝 쩐다. 민간우주여

행을 넘어 달과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의미하는 신호이기도 해 반가운 마음이다. 특히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에 '리절리언스(회복력)'라는 이름을 붙여 올해 시련과 역압을 겪은 사람들과 고난의 시기를 헤쳐 나가려는 인류의 본성을 기렸다고 하니 참으로 코로나에 시달린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독일의 화가, 판화가인 아담 엘스하이머(1578-1610)의 '이집트로의 피신'(1609년 작)은 유대의 왕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가는 요셉과 성모, 아기 예수의 실제 주제를 그린 그림인데 미술사 최초의 밤 풍경화로 알려진 작품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별과 우주를 관측하고 탐구해왔던 인류의 오랜 관심이 화가의 붓끝을 통해 캔버스에 펼쳐진 것이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요셉 손에 들린 작은 햇불, 조용한 수면 위에 비치는 보름달, 그림 왼쪽에 양치기들이 피우고 있는 모닥불 등 세 개의 상징적인 빛이 성서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아담 엘스하이머 작 '이집트로의 피신'

이 그림은 화가가 동판에 정교하게 그린 것으로 정확한 별자리들과 은하수, 달의 울퉁불퉁한 분화구까지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하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화가는 아마도 별에 대해 지식이 있었던 학자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작품은 달의 분화구 등을 관찰하여 1610년에 출간한 갈릴레이의 '별들의 전령사' 보다 제작연도가 앞선 것이어서 엘스하이머의 우주적 지식이 돋보인다는 전문가의 해석도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